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권 · 안경진 · 김종진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Influences of Tourism on the Subjective Well-Being

Hong, Sung-Kwon · An, Kyoung Jin · Kim, Jong-Jin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Konk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wo folds: (a)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tourism on subjective well-being, and (b) to understand the roles of travel motivation, constraint and personal value in subjective well-being. A polling agency was employed to select 500 respondents by quota sampling, and data was collected by online survey. ANOVA and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ourism participants, compared to the non-participants, have a tendency to select tourism as a mean to enhance their subjective well-being because they are more self-motivated people. Their high motivation to take a trip lead to set up their feasible goals to achieve by the tourism experience and their relatively few constraints help them to have trip easily. The people's satisfaction in tourism contributes to the satisfaction in his/her leisure life,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his/her subjective well-being. It is also revealed that tourism participation and subjective income level ar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which explain 21.1 percent of the variance. The research suggests various managerial implications to reduce constraints and several ideas for future researches.

Key Words: Happiness, Motivation, Constraint, Personal Valu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a)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b) 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동기, 제한요소 및 개인적 가치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여론조사 조사기관이 전국의 주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쿼터샘플링한 후 온라인 조사로 수집하였다.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a) 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높아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하였으며, (b) 비참여자들보다 관광 동기가 높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행목표를 세웠고, (c) 제한요소가 적어 관광을 쉽게 실행할 수 있어, 관광 후의 경험이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관광 참여 여부와 응답자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경제상태는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었으며, 전체 분산의 21.1%를 설명하였다. 관광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측면에서의 제언과 추후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주제어: 행복, 동기, 제한요소, 개인적 가치

Corresponding author: Kyoung Jin An, Dept. of Environmental Design, Konkuk University, Seoul 143-701, Korea, Tel.: +82-2-450-0444, E-mail: dorian@konkuk.ac.kr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행복이란 용어가 과거보다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세대를 통해 연구하고자 했던 보편적 주제이다. 그러나 이 개념의 정의는 아직 통일되지 않아 분야에 따라서는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 또는 건강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Alfonso, 1995; Lee and Chun, 2005).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은 행복을 최고의 선이며 인간행동의 궁극적 동기로 여겨왔지만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다(Diener, 1984).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주관적 안녕감은 다수의 생활영역(life domain)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핵심적인 생활영역의 하나가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이다. 세계관광기구는 1980년 마닐라선언에서 관광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임을 천명하였으며, 1985년 소피아에서 채택한 관광권리장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을 단순히 위락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1).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산림청은 산림을 통해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들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관광을 연구한 바 있다(Roh, 2011).

기존 사회심리학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은 일, 돈, 건강을 핵심 생활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3 정도는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강과 경제상태이며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영역은 전체의 6%를 설명할 뿐이었다. 관광을 독립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설명력은 5%에 불과하였다(Dolnicar *et al.*, 2012). 레크리에이션 영역과 관광 영역은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영역을 합해도 설명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건강과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려 노력하였지만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모두 합쳐도 10~15% 정도이다(Andrew and Withey, 1976). 이에 대해 Inglehart(1990)은 주관적 안녕감이란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도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다른 생활영역과 함께 그 효과를 검증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연구들은 특정 지역이

나 계층의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주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a)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검증하고, (b) 중요 관광참여 변수들이 설정한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어 그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며, (c) 관광이 차지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설명력을 다른 생활영역들과 함께 정산함으로써 관광의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주관적 안녕감

과거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은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느끼는지가 주관심사이어서 행복, 만족, 사기, 긍정적 정서 등이 중요한 주제이었다. 이를 위해 많은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정의하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기준은 선행이나 신성함과 같은 외적요소, 좋은(good) 삶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기준, 또는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많은지 이었다. 현재는 주관적 안녕감이 인지적(cognitive)이고 감정적(affective)으로 평가한 자신의 삶이며, 긍정적 감정(affect), 부정적 감정 및 삶의 만족이란 세 개의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감정적 요소이며 삶의 만족은 인지적 요소이다(Diener, 1984).

이 같은 개념화는 고대 그리스시대 철학자들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반한 행복주의(eudaemonia)에서는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생활과 자신의 잠재력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헤도니즘(hedonism)에서는 불쾌한 경험보다는 즐거운 경험이 많아야 사람들이 안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헤도니즘에 기반한 것이다(Pavot, 2013). 삶의 만족은 행복주의에 기반한 인지적 평가로써,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총체적으로 평가한 삶의 질이다(Shin and Johnson, 1978). 이 요소는 감정적 요소의 평가가 응답자들의 기분(emotional state)에 좌우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며(Schimmack, 2008) 경험의 정서적 측면 이외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간에는 상당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vot and Diener, 2008).

2. 관광과 주관적 안녕감

1) 관련 이론

지금까지 관광분야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만족관련 연구는 관

광경험이 주는 일시적 만족이 관심사이었다. 일부 연구만이 주관적 안녕감의 상향이론(bottom-up theory of SWB)을 적용해 관광이 주는 지속적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은 여가, 일, 건강, 가정과 같은 핵심 생활영역들에 대한 만족도로 결정된다. 사람들이 특정 영역에 포함된 활동에 만족한다면 그 영역의 만족도가 증가하며, 각 영역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상위개념인 주관적 안녕감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가정이 화목한 사람이 만족스런 관광경험을 하였다면 '가정영역'과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 두 영역을 포함해 다른 영역들의 만족도가 모여져 그 사람의 주관적 안녕감이 결정된다. Neal *et al.*(2007)과 Sirgy *et al.*(2011)은 이 이론에 근거해 만족스런 여행경험이 여가생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최종적으로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and Chun(2005), Jin and Song(2007)과 Choi and Park(2012)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일부 이론은 어떤 과정으로 만족스런 관광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지 설명하려 노력하였다. 목표이론(goal theory)에 따르면, 특정 생활영역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천 가능한 내재적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한다(Cantor and Sanderson, 1999). 여기서, 내재적 목표란 자기 성장과 같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목표를 의미하지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목표 수준을 설정하면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Gilbert and Abdullah(2004)의 연구에서도 만족한 여행자는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이것이 결국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결과를 목표이론으로 해석하면, 관광을 통해 특정 생활영역의 만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들이 관광지에서 만족한 경험을 했다면 그 사람이 세운 목표, 예를 들어 자기 성장이나 자율감의 만감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 것이다.

2) 영향변수

주관적 안녕감이란 사람들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nglehart, 1990). 관광의 경우, 목표 달성 정도는 동기, 제한요소 및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에 큰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대부분 목표 지향적이고 동기는 가장 확실한 행동의 목적이며(Jang and La, 2008), 제한요소는 관광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관광에 대한 선호형성을 제한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고(Crawford *et al.*, 1991), 개인적 가치는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Mehmetoglu *et al.*, 2010).

동기는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때 나타나며 모든 행동의 추진력이다. 반면, 제한요소는 관광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변수는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지만 공급자들은 사람들이 왜 관광을 하며 어떤 곳을 방문하는지가 관심사이어서 이를 설명해 주는 동기가 제한요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었다. 관광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추진동기에는 도심에서의 탈피, 휴식, 건강,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친목증진 등이 있다. 관광지의 선택은 유인 동기, 예를 들어 신기성과 교육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ompton, 1979). 동기는 행동의 중요한 선행변수이며 만족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세분과 성취도 평가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이코그래픽에 의한 시장세분이나 중요도-성취도 연구가 그 예이다.

제한요소는 "원하는 대안의 성취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으로(Jackson and Searle, 1985), 여가분야의 전통적 연구주제이다. 여가행동을 이해하려면 참여자뿐 아니라 비참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요소의 종류, 구조 및 이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제한요소와의 타협(negotiation) 등이 연구되어 왔다. Crawford and Godbey(1987)은 제한요소를 개인적, 개인간 그리고 구조적 제한요소로 분류하였으며, Crawford *et al.*(1991)은 세 가지 제한요소간의 위계적 관계뿐 아니라 제한요소, 선호 및 참여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위계구조모형을 제시하였다. 타협은 제한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가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전 여가연구들의 풀지 못했던 문제점, 즉 왜 제한요소와 여가참여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지 심지어 제한요소가 여가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Shaw *et al.*, 1991). 관광분야에서는 제한요소를 관광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제약요인(barrier)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것은 여가 제한요소의 구조 연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시간이나 돈 부족이 대표적인 예이다(Nyaupane *et al.*, 2004). 다른 하나는 제한요소를 의사결정과정에서 관광지 선택의 폭을 억제하는 요인(inhibitor)으로 보는 시각으로 Um and Crompton(1992)의 선택세트모형이 대표적이다.

개인적 가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특정 행동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신념"으로 정의된다(Rokeach, 1973). 가치는 특정대상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상황에서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Homer and Kahle(1988)은 다른 가치들이 상충되면 사람들은 보다 중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자기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도보다 행동 예측력이 높은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가치-태도-행동의 인과관계를 실증하였다. 내부지향적(internally-oriented)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주도적(self-motivated)이며 자신이 앞으로의 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결과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외

부지향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외적요인으로 해결되리라 믿는 성향이 강하다(Kahle, 1983). 가치는 관광 동기와 관광지에서 선호하는 행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어서 시장세분변수로 일부 연구되었지만, 관광분야에서 가치를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자료는 여론조사 조사기관이 2012년 11월 14일~2012년 11월 19일에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취

Table 1. Quota of respondents

Age Gender	30~39	40~49	50~59	Total
Male	84	89	77	250
Female	82	88	80	250
Total	166	177	157	5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s	Category	Number of respondents (%)
Education level	Up to high school	109(21.80)
	College graduated	58(11.60)
	University attending/graduated	333(66.60)
Marital status	Married	385(77.00)
	Unmarried	93(18.60)
	Others ^a	22(4.40)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000,000	47(9.40)
	₩2,000,000~4,000,000	191(38.20)
	₩4,000,000~6,000,000	166(33.20)
	More than ₩6,000,000	96(19.20)
Subjective economic position	Good	75(15.00)
	Normal	290(58.00)
	Poor	135(27.0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Healthy	175(35.00)
	Average	245(49.00)
	Not good	80(16.00)
Occupation	Clerical	234(46.80)
	Housewife	93(18.60)
	Professionals/management	53(10.60)
	Self-employed	48(9.60)
	Others ^b	72(14.40)

^a: Divorced, separated, bereaved

^b: Student, sales, technical/manufacture, labor, service, unemployed/retired

터 샘플링한 후 온라인 조사로 수집하였다. 쿼터는 우리나라 인구의 성비와 나이비율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응답자를 30~59세로 한정하였으며(Table 1 참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00명의 자료를 회귀분석과 분산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2 참조).

2. 변수의 측정

주관적 안녕감은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인지적 요소인 삶의 만족만을 측정하였다.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간에는 상관성이 높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주관적 안녕감으로 보고 있다(Meeberg, 1993; Rejeski and Mihalko, 2001). 그러나 주된 이유는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가능한 적은 수의 항목으로 변수를 측정해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삶의 만족은 사람마다 평가기준이 다르며 각 기준의 중요성도 달라 개별적인 기준이 아닌 총체적으로 삶의 만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접근법을 사용한 척도가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이다(Diener *et al.*, 1985). 이 척도는 5개의 항목으로 삶의 만족이란 단일차원을 측정하지만 신뢰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다양한 나이계층과 집단에 적용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Pavot and Diener, 1993). 동기는 Holiday Motivation Scale로 측정하였다(Ryan and Glendon, 1998). 이 척도는 숙달(mastery), 휴식(relaxation), 지식(intellectual), 사회성(social) 차원을 4개씩의 항목으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는 각 차원별로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제한요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 개인간 및 구조적 제한요소의 측정항목 중에서 2개씩을 선택하였다(Hong *et al.*, 2006; Nyaupane and Andereck, 2008). 가치는 List of Values(LOV)로 측정하였다(Kahle, 1983).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척도는 기본적으로 내부지향적 차원과 외부지향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관광은 개인의 자기주도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라 판단하였으며 측정항목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지향적 차원을 측정하는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은 모두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값으로 판단한 결과, 대부분의 척도는 양호하였지만 제한요소의 두 개 차원은 0.6보다 낮았다(Table 3 참조). 기존연구에 의하면, 특정 차원을 측정하는 항목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α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목의 개수가 많지 않다면 0.5 정도의 값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Carmines and Zeller, 1979). 또한, 적절한 수준의 α 값이란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어서 연구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값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Pedhazur and Schmelkin, 1991)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of measurement scales

Variables	Item	F1	F2	F3	F4	Cronbach's α		
Subjective well-being*	·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0.7901				0.8906		
	·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0.7641						
	· I am satisfied with my life.	0.8318						
	·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0.7192						
	·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0.7844						
	Variance explained(%)	60.65						
Motivation	Mastery	· To challenge my abilities	0.7240	0.0827	0.3710	-0.0356	0.8625	0.7995
		· To use my physical abilities	0.7998	0.0169	0.2012	-0.0147		
		· To develop physical fitness	0.7502	0.0442	0.2160	0.0499		
	Relaxation	· To relax mentally	0.0163	0.6655	0.2024	0.0990	0.7603	
		· To avoid the hustle and bustle	0.0937	0.6737	0.1324	0.0465		
		· To be in a calm atmosphere	0.0167	0.6498	0.0480	0.2214		
	Intellectual	· To increase my knowledge	0.3301	0.1374	0.5708	0.0846	0.7425	
		· To discover new place and things	0.2866	0.2204	0.6045	0.1214		
		· To learn about things around me	0.2533	0.1465	0.5441	0.2114		
	Social	· To develop close friendships	0.0569	0.1392	0.1914	0.7173	0.7907	
· To have a good time with friends		-0.0461	0.1594	0.0702	0.7340			
	Variance explained(%)	18.15	13.29	11.95	10.77			
Constraints	Intrapersonal	· Not interested in touring	0.5933	0.0733	0.0622		0.6323	0.6050
		· Not fit to tour	0.6043	0.1487	0.0427			
	Structural	· No time for touring	0.1595	0.4701	0.2235		0.4951	
		· No money for touring	0.2271	0.3938	0.2438			
	Interpersonal	· Unable to arrange a time with anyone who tour with	-0.1702	0.3789	0.4585		0.5193	
		· Cannot satisfy everyone where to tour	0.1640	0.2000	0.4531			
	Variance explained(%)	14.17	9.79	8.84				
Personal value	· To find peace of mind	0.7659				0.8682		
	· To be proud of yourself and confident with who you are	0.8168						
	· To succeed at what you want to do	0.8294						
	Variance explained(%)	64.72						

*: Measured by SWLS

으로 판단하였다. 동기의 사회성 차원의 항목 하나는 제거할 경우 α 값이 높아져 제거하였다. 척도들의 타당성은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를 배리맥스로 회전시켜 검토하였다(Table 3 참조). 예상대로, SWLS와 개인적 가치는 단일차원이었으며, 동기와 제한요소는 각각 4개 및 3개의 차원으로 분리되어 척도들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IV. 결과

전체 500명의 응답자 중 400명(80%)는 지난 23개월 동안 관광한 적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3.48회를 관광하였으며, 1~2회를 관광한 저 참여자는 202명(50.5%), 3회 이상을 관광한 고 참여자는 198명(49.5%)이었다. 독립성 검정 결과,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고소득자, 30대와 50대, 기혼자, 고학력자 및 주관적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Table 4 참조).

관광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관광 고 참여자, 저 참여자 및 비참여자로 나누어 분산분석하였다(Table 5 참조). 던컨검증 결과 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상하이론과 목표이론에서와 같이, 실천 가능한 여행 목표를 세운 후 실행에 옮겨 목표를 달성한다면 여행에서의 만족이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관광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의 개인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Table 6 참조). 목표이론에서는 내재적인 관광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외재적인 관광목표를 세

Table 4. Tourism participation/non-participation per variables

Variables	Category	Participants(%)	Non-participants(%)	Total(%)	p-value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000,000	24(6.00)	23(23.00)	47(9.40)	$\chi^2=44.4791$ $p<0.0001$
	₩2,000,000~4,000,000	142(35.50)	49(49.00)	191(38.20)	
	₩4,000,000~6,000,000	144(36.00)	22(22.00)	166(33.20)	
	More than ₩6,000,000	90(22.50)	6(6.00)	96(19.20)	
	Total	400(100.00)	100(100.00)	500(100.00)	
Age	30s	137(34.25)	29(29.00)	166(33.20)	$\chi^2=5.0792$ $p=0.0789$
	40s	132(33.00)	45(45.00)	177(35.40)	
	50s	131(32.75)	26(26.00)	157(31.40)	
	Total	400(100.00)	100(100.00)	500(100.00)	
Marital status ^a	Married	320(82.90)	65(70.65)	385(80.54)	$\chi^2=7.1136$ $p=0.0077$
	Unmarried	66(17.10)	27(29.35)	93(19.46)	
	Total	386(100.00)	92(100.00)	478(100.00)	
Education level ^b	Up to college graduated	118(29.50)	49(49.00)	167(33.40)	$\chi^2=13.6754$ $p=0.0002$
	Above university level	282(70.50)	51(51.00)	333(66.60)	
	Total	400(100.00)	100(100.00)	500(100.00)	
Subjective economic position	Good	64(16.00)	11(11.00)	75(15.00)	$\chi^2=5.6221$ $p=0.0601$
	Normal	237(59.25)	53(53.00)	290(58.00)	
	Poor	99(24.75)	36(36.00)	135(27.00)	
	Total	400(100.00)	100(100.00)	500(100.0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Good	152(38.00)	23(23.00)	175(35.00)	$\chi^2=8.0255$ $p=0.0181$
	Average	188(47.00)	57(57.00)	245(49.00)	
	Not good	60(15.00)	20(20.00)	80(16.00)	
	Total	400(100.00)	100(100.00)	500(100.00)	

^a: Divorced, separated, bereaved were excluded due to minimum numbers of responded

^b: Divided in two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frequency

Table 5. Subjective well-being per tourism participation

Variables	Category	Mean/ Duncan test	Sample size	p-value
Subjective well-being	Heavy participant group ^a	17.4242 a	198	0.0012
	Low participant group ^b	17.7228 a	202	
	Non-participant group	15.2100 b	100	

^a: Toured more than 3 times

^b: Toured 1 to 2 times

Table 6. Personal value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Mean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Personal value	Participants	17.2500	3.0075	2.11	0.0369
	Non-participants	16.3700	3.8942		

운 사람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관광은 누가 원해서거나 외부적인 보상을 위해서가 그 자체가 즐거워서 이루어져야 만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사용한 내부지향적 가치는 응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측정

한 것이어서, 참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자신이 세운 목표를 관광을 통해 얻었으며 그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 것이다.

관광 동기에 있어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 휴식 차원, 지식 차원, 사회적 차원에 차이가 있었다(Table 7 참조). 목표는 달성하기 쉽고 그 결과로 긍정적 감정을 얻을 수 있어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 여기서 관광목표는 Maslow(1943)의 상위욕구, 내재적 욕구 또는 평상시 결핍되었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irgy, 2010). 기존 연구에서도 긍정적 감정은 성장요소(growth factor)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ener and Lucas, 1999). 성장요소란 욕구위계설에서의 상위욕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이 충족되면 만족이 증가하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족하지는 않는다(Herzberg et al., 1957). 본 연구의 경우에는 지식 차원과 사회성 차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식 차원은 관광발생의 근본적 이유인 지적 호기심을 의미하며 사회성 차원은 전형적인 관광의 내재적 욕구이다. 응답자들이 도시민이란 점을 고려하면 휴식 차원은 결핍된 욕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숙달 차원은 두 집단 간에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오히려 비참여자가 참여자보다 높았다.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기척도는 여가분야에서 개발된 척도를 관광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또는 많은 참여자들이 체력 단련이나 육체적 능력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관광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 참여자들은 비참여자들보다 개인적 및 구조적 제한요소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Table 7 참조). 관광 참여자들은 개인적, 개인간 및 구조적 제한요소를 순차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관광 참여율이 높아진 것이다. 즉, 비참여자들은 참여자들보다 관광에 대한 선호가 낮아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할 확률이 낮으며, 관광에 대한 선호가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제약요인에 해당하는 구조적 제한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참여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참여자들은 비참여자들보다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구조적 제한요소를 극복하거나 타협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선호가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개인적 제한요소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 값은 모두 평균 이하이어서 관광선호 형성 여부에는 그리 큰 역할을 못하였지만, 구조적 제한요소는 모두 평균값 이상이어서 관광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협이 관광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Hong *et al.*(2004)

은 집단 간에 제한요소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국립공원을 계획대로 다녀온 집단은 응답자의 39.7%이었으며 35.7%는 예정했던 장소,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타협전략을 사용해 여름 휴가를 다녀왔음을 보고하였다.

다른 생활영역들이 포함되었을 때 관광 참여 여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및 주관적인 경제상태와 함께 독립변수로 사용해 회귀분석하였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높아 형태 III 자승합(type III SS)이 적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제거하였다(Table 8 참조). 형태 III 자승합이란 모든 변수가 모델에 투입되었을 때 회귀변동(SSR)에서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의 회귀변동을 뺀 값을 의미한다. 관광참여와 주관적 경제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수정된 설명력은 0.2106으로 양호하였고, 분산팽창계수도 1 정도이어서 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Table 9 참조). 이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다수의

Table 8. Type III sum of square per variables

Variables	df.	Type III SS	F-value	p-value
Subject health condition	1	195.5303	7.33	0.0070
Subject economic position	1	2,125.9718	79.67	<0.0001
Participation/non-participation	1	197.8865	7.42	0.0067

Table 7. Motivation and constraints of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Variables	Dimension	Mean	S.D.	t-value	p-value	
Motivation	Mastery	Participants	9.8300	3.8194	-0.69	0.4927
		Non-participants	10.1200	3.6077		
	Relaxation	Participants	16.4050	2.7331	4.28	<0.0001
		Non-participants	14.8800	3.2915		
	Intellectual	Participants	13.3175	3.2501	2.21	0.0273
		Non-participants	12.5100	3.3136		
Social	Participants	10.6250	2.2798	4.68	<0.0001	
	Non-participants	9.2300	2.7519			
Constraints	Intrapersonal	Participants	5.1800	2.5126	-3.81	0.0002
		Non-participants	6.2400	2.3789		
	Interpersonal	Participants	8.7625	2.4436	0.87	0.3862
		Non-participants	8.5300	2.2040		
	Structural	Participants	8.2100	2.7695	-3.56	0.0004
		Non-participants	9.2900	2.4630		

Table 9. Effects of self-perceived income level and tourism particip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Variables	df.	β	S.E.	t-value	p-value	Standardized β	VIF
Constant	1	8.2133	0.8262	9.94	<0.0001	0	0
Subjective economic position	1	3.9981	0.3670	10.90	<0.0001	0.4356	1.011
Participation/non-participation	1	1.7153	0.5842	2.94	0.0035	0.1174	1.011

생활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관광 참여가 주관적 경제상태보다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관광참여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a) 전국의 도시 거주자들의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자 하였으며, (b) 관광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른 핵심 생활영역과 비교하였고, (c) 중요 관광참여 영향변수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역할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으며, 비참여자들보다 동기와 가치는 높았지만 제한요소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a) 참여자들은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높아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관광을 선택하였을 확률이 높으며, (b) 비참여자들보다 관광 동기가 높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행목표를 세웠으며, (c) 제한요소의 영향이 적어 관광을 실행하는 것이 용이해, 관광 후의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두 번째, 관광 참여 여부와 응답자 자신이 평가한 주관적 경제상태는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었으며, 이들은 전체 분산의 21.1%를 설명하였다. 관광참여가 주관적 경제상태보다 중요성은 낮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생활영역의 하나인 주관적 건강상태보다는 중요한 변수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관광 참여빈도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분야에서는 동기를 단순히 관광의 추진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목표이론에서는 특정 행동결과의 보상이 그 행동을 하려는 동기라 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관광 참여자들은 비참여자들보다 성장요소인 지식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휴식 차원이 강한 동기이었다. 참여자들의 높은 동기가 관광행동으로 이어졌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이들은 비 참여자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자원(resource)은 목표를 얻으려 투자하는 수단으로(Freud and Riediger, 2001),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으며 주관적 안녕감도 높아진다(Cantor and Sanderson, 1999). 더욱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에 적합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원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하기 때문이다(Riediger

and Freund, 2006). 제한요소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관광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관광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체력', '시간' 및 '돈'이란 자원이 많아 타협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관광 동기를 실천한 것이다.

휴가는 산업국가 국민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주관적 안녕감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안이다(Rubenstein, 1980). 우리나라도 복지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관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관광 또는 사회적 관광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환경적 상황에 개의치 않고 휴가를 즐기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oh, 2011). 결국 사회적 약자들의 관광 제한요소를 완화시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제한요소 중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예를 들어, 개인적 제한요소의 하나인 '여행 자체에 흥미가 없어서'는 응답자들이 실제로 관광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즐길 거리가 없거나 자신의 관광 목표를 충족시켜 줄 관광지가 없어 흥미가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동기로 시장을 세분해 다양한 형태의 관광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할 돈이 없다'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의계층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사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제한요소인 '관광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숙소예약의 어려움'은 관광지 관리자나 지자체가 실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며, '관광지가 멀어서' 등은 국가의 관광투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니 추후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자료 수집문제이다. 본 연구는 30~59세의 도시민들 자료를 한 번의 온라인조사로 수집하였다. 경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지만,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많은 항목을 조사하기 곤란해 SWLS만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으며 제한요소의 세 구성개념들을 2개씩의 항목만으로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에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제한요소의 Cronbach의 α 값은 낮았다. 보통의 경우, 요인분석에서는 요인 당 3개 이상의 항목이 필요하며, 2개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 경우이다. 또한 농촌주민과 노인계층이 자료에서 누락되었다. 연속성이론(continuity theory)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고, 행동 및 습관의 패턴을 유지해야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Atchley, 1989). 즉, 나이가 들어도 과거에 참여했던 여가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2010년 노인은 전체인구의 16.61%에 이르며(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노인들의 중요한 여가수단인 관광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자료를 종단조사로 수집하며 보다 많은 항목으로 변수를 측정해야 더욱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본 연구는 핵심 생활영역으로 관광참여와 주관적 건강 및 주관적 경제상태만을 포함시켰을 뿐 나머지 생활영역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핵심 생활영역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지만,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일과 물질적 웰빙, 건강, 가족과 사랑,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의 순서이었다(Dolnicar *et al.*, 2012). 관광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보다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활영역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이론에서는 관광 참여빈도가 강도보다 주관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의미가 나라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연구는 정해진 기간인 23개월 동안의 관광 참여횟수만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관광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관광 참여빈도와 강도에 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Alfonso, V.(1995) Measures of quality of life,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David B. Allison, ed., *Handbook of Assessment Methods for Eating Behaviors and Weight-Related Problems: Measures, Theory, an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 23-80.
2. Andrews, F. and S. Withey(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3. Atchley, R.(1989) A continuity theory of normal aging. *The Gerontologist* 29(2): 183-190.
4. Cantor, N. and C. Sanderson(1999)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 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 daily life. In D. Kahneman, E. Diener, and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pp. 230-243.
5. Carmines, E. and R. Zeller(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Series No.17*. Newberry Park: Sage.
6. Choi, S. and J. Park(2012) An analysis on quality of life by domestic travel participation. *Journal of Tourism Studies* 24(2): 25-47.
7. Crawford, D. and G. Godbey(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8. Crawford, D., E. Jackson and G. Godbey(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13(4): 309-320.
9. Crompton, J.(1979) Motivations of pleasure vacations.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424.
10.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11. Diener, E., and R. Lucas(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and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pp. 213-229.
12. Diener, E., R. Emmons, R. Larsen and S. Griffin(1985) The satisfaction

-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13. Dolnicar, S., V. Yanamandram and K. Cliff(2012) The contribution of vacations to quality of lif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59-83.
14. Freud, A. and M. Riediger(2001) What I have and what I do: The role of resource loss and gain throughout lif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0(3): 370-380.
15. Gilbert, D. and J. Abdullah(2004) Holidaytaking and the sense of well-be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105-121.
16. Herzberg, F., B. Mausner, R. Peterson and D. Capwell(1957) *Job Attitudes: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Pittsburgh, PA: Psychological Services.
17. Homer, P. and L. Kahle(1988) A structural equation test of the 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38-646.
18. Hong, S., H. Jang, S. Lee and J. Kim(2004) Constraints and negotiation strategies of national park visito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2(5): 1-10.
19. Hong, S., J. Kim, H. Jang and S. Lee(2006) The roles of categorization, affective image and constraints on destination choice: An application of the NMNL model. *Tourism Management* 27(5): 750-761.
20. Inglehart, R.(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1. Jackson, E. and M. Searle(1985)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participation: Concepts and models. *Loisir et Société* 8(2): 693-707.
22. Jang, H. and S. La(2008) *Tourist Behavi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23. Jin, C. and W. Song(2007) The effect of tourist experience on tourist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Case of non-institutionalized domestic tourists.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4): 23-41.
24. Kahle, L.(1983) Dialectical tensions in the theory of social values. In L. R. Kahle, ed., *Social Values and Social Change: Adaptation to Life in America*. New York: Praeger, pp. 275-284.
25.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26. Lee, J. and W. Chun(2005) The relationships among tourism activities,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8(4): 149-172.
27. Maslow, A.(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28. Meeberg, G.(1993) Quality of lif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8(1): 32-38.
29. Mehmetoglu, M., K. Hines, C. Graumann and J. Greibrokk(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values and tourism behaviour: A segmentation approach.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16(1): 17-27.
3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1) *Annuals on Tourism Trend Analysis in 2010*.
31. Neal, J., M. Uysal and M. Sirgy(2007) The effect of tourism services on travelers' quality of lif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2): 154-163.
32. Nyaupane, G. and K. Andereck(2008) Understanding travel constraints: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a leisure constraints mod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4): 433-439.
33. Nyaupane, G., D. Morais and A. Graefe(2004) Nature tourism constraints: A cross activity comparis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540-555.
34. Pavot, W.(2013) The validity and utility of global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4(2): 50-58.
35. Pavot, W. and E. Diener(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36. Pavot, W. and E. Diener(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2): 137-152.

37. Pedhazur E. and L. Schmelkin(1991)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Hillsid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8. Rejeski, W. and S. Mihalko(2001) Physical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 Biological Science & Medical Sciences* 56(2): 23-35.
39. Riediger, M. and A. Freund(2006) Focusing and restricting: Two aspects of motivational selectivity in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21(1): 173-185.
40. Roh, Y.(2011) *Systematization and program development of working class friendly tourism and welfare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41.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42. Rubenstein, C.(1980) Vacations: Expectations, satisfactions, frustrations, fantasies. *Psychology Today* 14(3): 62-76.
43. Ryan, C. and I. Glendon(1998) Application of leisure motivation scale to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1): 169-184.
44. Schimmack, U.(2008)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and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NY: Guilford. pp. 97-123.
45. Shaw, S., A. Bonen and J. McCabe(1991) Do more constraints mean less leisur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4): 286-300.
46. Shin, D. and D. Johnson(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 475-492.
47. Sirgy, M.(2010) Toward a quality-of-life theory of leisure travel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49(2): 246-260.
48. Sirgy, M., P. Kruger, D. Lee and G. Yu(2011) How does a travel trip affect touris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3): 261-275.
49. Um, S. and J. Crompton(1992) The roles of perceived inhibitors and facilitators in pleasure travel destination decis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3): 18-25.

원 고 접 수 일: 2014년 4월 17일
 심 사 일: 2014년 5월 22일(1차)
 2014년 6월 17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4년 6월 17일
 3 인 의 명 심 사 필